

#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관계 분석( I )\*

## A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ituation and Adolescents' Aggression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정 옥  
강 사 구 향 숙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Catholic Univ.  
*Prof. : Jung Ok Kim*  
*Lecture : Hyang Suk Goo*

### 〈목 차〉

I. 문제제기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situation – communication apprehension(CA), family communication orientation(FCO), individual viewing motives and perceived realism of aggressive films – and aggression.

The data from 193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sed by SAS program.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ere analysed by Cronbach's to the reliability, factor analysi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Duncan's multiple 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A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aggression against the materials, and potential aggression. FCO had no direct effect on aggression but concept-oriented family affected indirect effect on aggression through viewing motives. The ritualistic motives were more positively related to aggression and identity than instrumental motive.

\* 본 연구는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현상은 폭력과 패륜범죄 증가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 범죄 양상은 흉포화되고 연소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학내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교내 폭력씨클이 600여개에 이른다는 보고(KBS뉴스, 1995.12.3)는 청소년 폭력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행동의 형성 원인에는 유전적 기질, 생리적 수준, 부모의 양육 형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분위기, 또래의 영향 등이 작용하며, 이러한 공격행동의 표출과 지속에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크다(Huesmann, 1984).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커뮤니케이터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또 수용자의 수용 태도에 따라 정보, 학습, 지도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오락 및 도피의 기능이 강조될 때에는 선정적, 폭력적인 행동 양산이라는 사회의 역기능적인 반응을 산출한다. 영상매체의 폭력물이 의도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가르치지는 않는다해도 공격성향의 영화가 개인이 지닌 공격적인 사고를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곽금주, 1992)와 청소년기의 특성이 가소성이 큰 불안정한 발달 단계이고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TV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영상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폭력 영상매체와 청소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폭력 영상매체와 청소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 수용의 상황적 선행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사회성은 '청소년기'라는 하나의 발달시점에서 형성되기보다는 어린시절부터 그 가족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유형에서 형성, 발달되는 것이다. 아동기에 이미 형성된 공격성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며(Huesmann, 1984) 일단 공격성 또는 반사회적 행동이 획득, 표출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감소되기보다는 지속되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격렬한 공격행동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지속

된다(Loeber, 1982). 이 결과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는 성장기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상황 및 어린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폭력물의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현실감지각이나 선택동기에 따라 공격성의 정도는 달라지고(하중원, 1993), 이와같은 영상매체 수용형태는 개인 성장기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지향성과 어린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불안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Chaffee, McLeod, & Atkin, 1971),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지향성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불안은 조상한다(Stowell, 1991).

그러나 폭력영상매체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미디어 폭력물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적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지의 직접적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에 있을 뿐(곽금주, 1992; 양운정, 1993; 김민, 1994; Huesmann, 1984) 효과 생성의 과정적 상황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접목시킨 선행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불안,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는 영상매체의 수용동기와 폭력물에 대한 현실감지각 변인을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적 변인으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커뮤니케이션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고도의 정보 체계, 컴퓨터의 대중화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의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에서 PC통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 상호작용 유형은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면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기술이 결여될 때 개인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이를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Zimbardo, 1977)도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불안(이하 CA라 칭한다)의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유전적 기질 또는 사회 환경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생리학자들은 CA의 원인이 유전적 素因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Scarr, 1969; Plomin, 1974) CA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들은 사회적 학습이론에 입각하여 3가지 환경적 조건 즉 강화, 기술 획득, 모델링을 주요 조건으로 들고 있다.

McCroskey(1977)는 CA를 학습된 성향으로 간주하며 이 성향은 아동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강화를 통해 조건화되는 것이라 한다. CA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행위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벌을 피하는 것이므로 회피를 보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했을 때 조용히 하기를 강요당하거나, 부정적인 강화가 있었을 경우 아동은 말이 적어지고, 이런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높은 수준의 CA를 나타내며, 이러한 학습은 초기 아동 시기에서 내면화되어 진다(Aronfeed, 1968).

기술 획득에 근거하여 CA를 설명하는 입장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기술을 얻지 못했거나 부족할 때 CA가 발생한다고 한다(Daly & Friedrich, 1981).

모델링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나 양육해주는 대리인의 의사소통 양식을 모방하며(Daly & Friedrich, 1981),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사회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높은 수준의 CA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보고(Walberg & Marjoribanks, 1973)가 있다. 그러한 가정은 긴장이 많고, 비조직적이고, 혼란스러움을 보인다(Daly & Friedrich, 1981).

CA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개념화되는데(Pilkonis, 1977),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학자간의 연구접근방식에 따라 무대 공포증(Stage Fright; Clevenger, 1959), 과묵(Reticence; Phillips, 1968), 수줍음(Shyness; Zimbardo, 1977), 사회적 근심(Social

Anxiety; Glaser, 1981), 커뮤니케이션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McCroskey, 1970; Stowell, 1991) 등의 상이한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 McCroskey(1977)는 CA를 연설 등 의사발표를 하거나 대화 또는 모임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수준이라 정의했으며, CA는 학업성적과 인간 상호관계에서의 성취도의 誘因으로 개념지워지기도 한다(McCroskey, Butterfield, & Payne, 1989).

높은 수준의 C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McCroskey & Daly, 1976), 이들은 낮은 지적 기술, 낮은 사회적 자존감, 사회적 내향성 및 소외감(McCroskey, 1980), 대인관계의 저조, 무관심, 우유부단, 침울함, 긴장, 참을성의 결여 등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Stowell, 1991).

CA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상관을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 자존감과 폭력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다는 보고(박경규, 1994)가 있다. 또한 청소년 공격성이 부모와의 응집력 정도와 부적 상관이 있고(양점도, 1994), CA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과(Walberg & Marjoribanks, 1973)를 결부시켜 볼 때 CA가 공격성의 한 예측요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CA가 사회지향적인 가족 커뮤니케이션 규범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Stowell, 1991) 사회지향적 가족이 개념지향적 가족보다 폭력물 시청량이 많다는 결과(Chaffee, McLeod, & Atkin, 1971) 역시 CA가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지지해 주고 있다.

## 2. 가족 커뮤니케이션 지향성(Family Communication Orientation)

가족은 개인의 성장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환경으로서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매우 영향력이 큰 요인이다. Bernstein(1972)에 의하면 가족 커뮤니케이션 지향성(이하 FCO라 칭한다)은 자녀의 언어 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원이 엄격한 역할을 가

지고 있는 지위 지향(position-oriented) 가족의 아동은 제한된 언어 신호체계를 가지기 쉬우며, 반면 인간 지향(person-oriented) 가족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이고 정교하고 상세한 언어 신호체계를 발달시키며 이런 언어 신호체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강화를 끌어내기가 쉽다고 했다.

Lull(1980)은 Bernstein의 가족 상호작용의 개념을 발달시켜 개념 지향(concept-oriented) 가족과 사회 지향(socio-oriented) 가족으로 개념화시켰다. 사회 지향 가족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상호 간 그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것을 권하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양보하거나 아예 논쟁을 피하고 화가 나도 부조건 참으라고 하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개념 지향 가족은 의사 소통이 원활한 가족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신념이 다를 때는 이의를 제기하라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

FCO는 자녀가 가족 생활의 외부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관한 '인지적 형상화(cognitive mapping)'에 기여하는 요인이고(Chaffee, 1966)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개인의 인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McLeod, Chaffee, & Wackman, 1967). Stowell(1991)은 사회 지향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은 CA를 발달시키기 쉬우며 그 귀인이 부모의 제한적 성질을 면 통제와 언어적 처벌(비난, 욕)에 있다고 보았다.

FCO와 TV수용과의 관계에서 사회 지향 가족은 개념 지향 가족에 비해 TV시청량이 많으며 사회적 목적으로 TV를 수용한다. 즉 사회 지향 가족에서 TV시청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 인간 상호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매개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에서는 TV가 가족원 간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 현상을 지각하는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Lull, 1980).

Chaffee 등(1971)에 의하면 사회 지향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은 TV의 폭력물 시청 시간이 많았고, TV오락물에 대한 모델링 경향이 높았다는 다른 보고(McLeod, Atkin, & Chaffee, 1972)도 있다. FCO와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매체의 폭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극 가설에서 볼 때 FCO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임을 지지해 주고 있다.

### 3. 영상매체 수용 동기와 폭력물에 대한 현실감 지각

매체의 폭력이 공격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초기의 연구 경향은 일관적 효과론의 입장에서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시청량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 했다(하종원, 1993). 1976년 이후 Gerbner는 매체의 폭력 성향에 대한 효과에 대해 다수의 연구를 해왔으나 기본적으로 매체 효과의 일관성, 수용자의 습관적 내지 의례적 시청 형태를 그 이론적 가정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관적인 시청행위에 따른 균일한 경험의 창조를 낳는 총 시청량을 기본적인 독립변인으로 삼고 있다(Signorielli & Morgan, 1990). 그러나 총 시청량만으로 매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개인차적 입장이 대두되면서 매체의 수용동기(Carveth & Alexander, 1985)와 매체 내용의 현실성에 대한 지각(Potter, 1986)이 특정 효과 유발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즉 매체의 수용동기는 소일·습관, 오락·흥분, 친교·도피 등 의례적 내지 관습적일 때가 정보·학습의 도구적일 때 보다 매체 효과의 정도가 컸으며, 현실감 지각은 매체의 폭력적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보려는 동일화(identity)지각보다는 현실세계의 내용과 똑같이 보는 요술창문(Magic window)으로 지각하는 수용자들이 현실세계를 더 비열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특성으로서의 매체 수용동기나 폭력적인 내용을 봤을때 받아들이는 현실감 지각정도는 공격성이라는 매체의 효과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고려할 수 있다.

### 4. 매체의 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이론

폭력 영상매체 수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세 이론들은 세 범주 - 감소 가설, 자극 가설, 무효

과 가설 - 로 구분할 수 있다.

감소 가설은 카타르시스 이론(Feshbach, 1961; Comstock, 1980)과 감정이입설(Biblow, 1973)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장면을 봄으로써 공격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다. 카타르시스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파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통해 쌓인 분노와 증오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분출해야 하며, 폭력적인 장면은 그러한 인간 본능의 공격적인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공격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환상'을 사용하는데(윤진, 광규주, 1991) 즉 환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재된 공격적인 긴장을 해소하며, 폭력물을 보기 전 이미 화가 나 있었을 경우 카타르시스 효과는 높다(Feshbach, 1961). 감정이입설은 단순히 폭력물을 보는 것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미디어 폭력물을 보면서 수용자가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때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설이다. 그러나 감소 가설은 폭력적인 환상에의 몰입이 공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Leyens, 1977)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자극 가설은 미디어 폭력물이 수용자의 공격성을 유발시킨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자들 간의 표본 선정과 측정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자극 가설은 기초 분기 가설(Zillmann, 1978), 고전적 조건화 가설(Kaplan & Singer, 1976), 감지성 약화설(Eysenck & Nias, 1978), 감염설(Wiegmen, 1975), 관찰 학습이론(Bandura, 1977)에 의해 지지되어 왔으나 이들 이론이 미디어 폭력물 수용 후의 새로운 공격 행동의 획득이나 공격량의 증가에 관한 것만 설명했을 뿐 공격 장면을 시청한 후 발견되는 금지 해제, 정서적 분기, 태도 형성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폭력물이 주는 효과에 관한 두 가지 대안적 설명이 80년대 이후 새로이 제시되었는데 점화 가설에 의한 연합망이론(Berkowitz, 1984)과 스크립트 형성과 인출(Huesmann, 1988) 이론이다. 이 이론들은 공격적인 장면의 시청이 공격 행동을 일으키는 인지적 처리과정에서 관찰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Berkowitz(1984)는 점화 가설에 의해 공격 영화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즉 공격 영화에 의해 활성화된 공격적 사고는 의미적으로 관련된 사고들을 점화하게 되며, 따라서 그 영화에서 관찰한 것과 다른 형태의 공격성에 관한 사고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Huesmann(1982)은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공격 장면의 영향을 설명하였는데, 개인은 누구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를 기억에 저장하여 하나의 스크립트(행동 패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TV나 영화를 통해 공격 장면이 반복 노출되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격적 행동 방식을 저장하게 되며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인출 단서가 제시되면 공격적 행동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공격적 스크립트의 획득 과정은 폭력물 수용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큰 효과가 있으며 스크립트의 인출 과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큰 영향력이 있다(Huesmann, 1988).

무효과 가설은 미디어 폭력물이 공격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Halloran, 1980)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경험적 연구가 없으며, 무효과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 간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폭력물의 자극 효과가 나타나므로 미디어 폭력물의 자극설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5. 연구 모형과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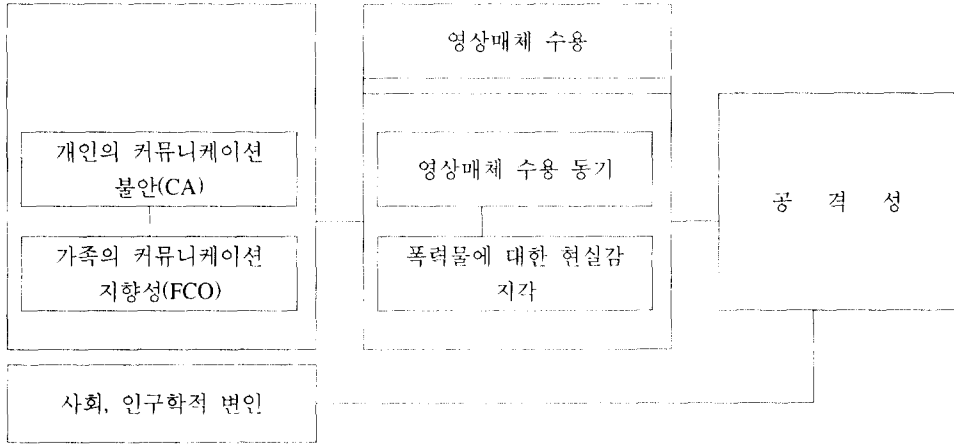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과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CA, FCO, 영상매체 수용 동기, 폭력물 수용 시의 현실감 지각, 공격성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CA, FCO, 영상 매체 수용 동기, 폭력물 수용 시의 현실감 지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연구 모형의 각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구조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193매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는 설문지 배포에 앞서 고등학교 1년생 20명과 2년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문항 작성 및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 배포 방법은 교사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응답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였다.

조사 기간은 1995년 10월 2일에서 6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측정 도구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McCroskey(1975)에 의해 개발된 척도 Personal Report Communication Apprehension(PRCA)을 Stowell

(1991)이 수정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6문항씩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별 내용은 집단 토론, 모임 참석, 일대일의 대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의견발표시 느끼는 불안과 긴장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91이다.

#### 2) 가족 커뮤니케이션 지향성(Family Communication Orientation)

Chaffee등(1973)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10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질문내용이 반대인 문항은 역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념지향적이다. 척도의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개념지향성 및 사회지향성의 하위영역으로 양분되어 Chaffee등(1973)의 연구의 요인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74이다.

#### 3) 영상매체 수용 동기

하종원(1993)이 선행 연구들의 척도를 번안, 수정한 것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항을 추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22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척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빈도(%)	변 인	집 단	빈 도(%)
연 령	고2	12( 6.2)	이사횟수 (국민학교 입학전까지 어린시절)	없다	36(18.7)
	고3	181(93.8)		1회	48(24.9)
2회				49(25.4)	
3회				33(17.0)	
4회 이상				25(13.0)	
무응답	2( 1.0)				
총수입	50만 미만	2( 1.0)	종교유무	불 교	51(26.4)
	50-100만 미만	18( 9.3)		기독교	47(24.4)
	100-150만 미만	64(33.2)		천주교	23(11.9)
	150-200만 미만	54(28.0)		유 교	3( 1.6)
	200만 이상	54(28.0)		천도교	1( 0.5)
	무 응 답	1 (0.5)		무 교	68(35.3)
형 제 자매수	1명	7( 3.6)	종 교 참여도	주2회 이상	8( 4.1)
	2명	116(60.1)		주1회	35(18.1)
	3명	45(23.3)		월1회 정도	10( 5.2)
	4명	19( 9.8)		1년 5-6회	14( 7.3)
	5명	6( 3.2)		1년 1-2회	27(14.0)
무		무	99(51.3)		
형 제 자매 순 위	장 남	90(46.6)	지 역 공동체 크 기	대도시	141(73.1)
	둘째	64(33.2)		중소도시	19( 9.8)
	셋째	21(10.9)		군·읍단위	16( 8.3)
	넷째	13( 6.7)		면소재지	16( 8.3)
	다섯째	5( 2.6)		무응답	1( 0.5)
양 친 유 무	유	182(94.3)	학 업 성 적	10등 이내	46(23.8)
	무	11( 5.7)		11-20등	55(28.5)
				21-30등	36(18.7)
				31-40등	33(17.1)
				41-50등	14( 7.3)
				50등 이상	9 (4.6)
무					
아버지 교 육 수 준	국 졸	11( 5.7)	어머니 교 육 수 준	국졸	19( 9.8)
	중 졸	28(14.5)		중졸	62(32.2)
	고 졸	94(48.7)		고졸	83(43.0)
	대(전문대)졸	51(26.4)		대(전문대)졸	28(14.5)
	대학원졸	9( 4.7)		대학원졸	1( 0.5)

도는 정보·학습, 오락·흥분, 소일·습관, 도피·친교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졌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2이다.

4) 폭력물 수용 시 현실감 지각  
하종원(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였다. 척도의 구체적 내용은 폭력물 내용을 현실로 느끼는가 또는 허구적으로 느끼는가에 관한 요술거울

(magic window) 현실감과 폭력적 내용에 동화되거나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관한 동일화(identity) 현실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 수는 16개 문항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5이다.

### 5) 공격성

Dodge(1980)와 콕금주(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척도의 내용은 대인공격(10문항), 대물공격(8문항), 잠재적 공격(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8이다.

### 3. 자료 분석 방법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산

출하고 각 변인별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 변량 분석, Duncan's multipl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커뮤니케이션 상황 및 공격성의 전반적 경향

조사 대상자들의 각 변인별 하위영역에 따른 전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CA수준은 2.97로 점수의 가능 범위의 중간점에 가까웠다. CA의 하위 영역별 점수 경향을 보면 현실 영역이 3.24로 가장 높았고 그룹 토론, 모임 참석, 일대일 대화의 순으로 나타나 커뮤니케이션 상

<표 2> 청소년의 공격성 및 커뮤니케이션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n=193)

변 인	하위 영역	평 균	가 능 범 위	표 준 편 차
커뮤니케이션 불안(CA)	현 실	3.24	1-5	0.67
	그룹토론	3.03	1-5	0.68
	모임참석	3.01	1-5	0.66
	대 화	2.61	1-5	0.62
	전 체	2.97	1-5	0.55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개념지향	3.52	1-5	0.62
	사회지향	3.16	1-5	0.68
	전 체	3.36	1-5	0.45
영상매체의 수용동기	정보·학습	3.26	1-5	0.68
	오락·흥분	3.26	1-5	0.73
	소일·습관	3.22	1-5	0.90
	도피·진료	3.32	1-5	0.97
	전 체	3.36	1-5	0.49
폭력물수용시 현실감 지각	동 일 화	3.39	1-5	0.65
	요술거울	3.28	1-5	0.62
	전 체	3.38	1-5	0.58
공 격 성	대인공격	2.37	1-5	0.71
	대물공격	2.03	1-5	0.74
	잠재적공격	3.62	1-5	0.79
	전 체	2.46	1-5	0.57



대의 수가 많을수록 CA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FCO는 개념 지향적인 가족(3.52)이 사회 지향적 가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매체의 수용 동기는 도피·친교의 목적이 3.32로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폭력물 수용시의 현실감 지각은 요술거울 현실감보다 동일화(3.39)가 높게 나타나 폭력물이 모델링의 기제를 가진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공격성은 2.46으로 가능 점수의 중간점에 미달하

였으나 잠재적 공격이 3.62로 나와 이는 실제 공격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아도 잠재적 성향으로 공격 동기를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조사 대상자의 공격성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Duncan's multiple test를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공격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	구 분	평균(N)	D	변 인	구 분	평균(N)	D
형제수 (본인포함)	1명	3.71( 7)	A	양 친 유 무	유	3.64(182)	A
	2명	3.74(116)	A				
	3명	3.32( 45)	A				
	4명	3.67( 19)	A				
	5명이상	3.17( 6)	A				
	F	2.91*					
학 업 성 적	1-10등	2.15( 46)	B	종 교	불 교	2.14( 51)	BA
	11-20등	2.29( 55)	BA				
	21-30등	2.37( 36)	BA				
	31-40등	2.57( 33)	BA				
	41-50등	2.69( 14)	A				
	51등이상	2.67( 9)	A				
	F	2.39*					
종교행사 참 여 도	주1회이상	1.48( 8)	B	폭 력 물 수용시기	전혀안본다	1.64( 2)	B
	주1회	1.87( 35)	BA				
	월1회정도	2.01( 10)	BA				
	1년 5~6회	1.81( 14)	BA				
	1년 1~2회	1.93( 27)	A				
	무	2.20( 99)	A				
F	2.57*		F	2.94*			
폭력비디오 영 화 수용량	전혀안본다	2.15( 36)	B				
	주 1편	2.32( 12)	BA				
	주 2~3편	2.63( 39)	BA				
	주 4~5편	2.59( 4)	BA				
	주 6편이상	3.09( 2)	A				
F	2.95*						

\* P<.05 \*\* P<.01

형제 수는 2명, 1명의 순으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친 유무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학업 성적과 공격성의 관계는 성적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았으며, 학급석차 41등을 기준으로 집단이 나누어졌다. 종교의 유무 및 종교 행사 참여도에 따른 공격성 정도는 1%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는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에 비해 공격성이 적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주 1회 이상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집단이 공격성이 가장 낮고 종교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폭력물 수용시기와 수용량에 따라서 공격성은 국민학교 입학 전부터 폭력물을 시청한 집단과 매주 6편 이상 폭력적인 비디오 영화를 보는 집단이 공격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 3. 커뮤니케이션 상황(CA, FCO, 영상매체 수용동기, 폭력물 수용시 현실감 지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별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커뮤니케이션 상황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각 변인의 하위영역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FCO의 개념지향 가족은 연설 영역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지향 가족은 연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규범이 개방적이고 개념지향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사회지향의 타인 위주로 억압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에 비해 다수의 사람 앞에서 자기표현을 두려움 없이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 준다.

영상매체 수용에 대해서는 개념지향 가족이 정보·학습 및 오락·흥분 동기와 5% 수준에서, 요술거울 현실감 지각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정보·학습 동기는 요술거울 현실감과 극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소일·습관 동기는 동일

화 현실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개념지향 가족에서 자란 청소년은 영상매체를 수용할 때 정보·학습이나 오락·흥분의 목적으로 수용하며 매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각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공격성에는 CA의 연설, 그룹 토론이 1%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대물 공격과 잠재적 공격영역에서 영향력이 인정되었다. 영상매체 수용동기의 하위영역에서는 도구적 성격올 때 정보·학습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 즉 의례적 성격의 동기들이 전반적인 공격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들이었다. 폭력물의 현실감 지각은 동일화 및 요술거울 영역 모두 대물 공격을 제외한 전반적 공격 수준에서 0.1% 수준에서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공격성의 하위영역별 영향력을 보면 대인 공격에는 요술거울 현실감 지각( $\beta=.36$ ) 동일화 현실감 지각( $\beta=.25$ ) 오락·흥분( $\beta=.22$ ), 도피·친교( $\beta=.22$ )의 매체 수용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대물 공격에는 CA의 그룹토론( $\beta=.27$ ), 연설( $\beta=.26$ ) 영역과 매체수용동기에서는 정보·학습을 제외한 의례적 성격의 동기들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CA경향이 있고 의례적으로 복적의식 없이 매체를 수용하는 사람은 공격행위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잠재적 공격에는 요술거울( $\beta=.39$ ), 동일화( $\beta=.29$ )가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고 의례적 수용동기들과 CA의 그룹토론 영역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4. 공격성과 커뮤니케이션 상황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구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그리고 <표 6>은 경로모형 검증에 위한 경로계수이다.

CA와 영상매체 수용동기, 폭력 영상매체 수용시의 현실감 지각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들이다. 한편 CA는 폭력물 수용시 현실감 지각

〈표 4〉 각 변인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변인	커뮤니케이션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지향성(FCO)		영상매체 수용동기			폭력물수용시 현실감각		공격성	
	연설	그룹토론	개념 사회 지향성	정보 학습	오락 흥분	소일 습관	도피 친교	동일화	요술 거울	대인	관계적
CA	연설	1.00000									
	그룹토론	0.46766***	1.00000								
	모임	0.49953***	0.44033***	1.00000							
FCO	대화	0.58450***	0.42567***	0.43649***	1.00000						
	개념지향성	-0.16112*	-0.12538	-0.08386	1.00000						
	사회 지향성	0.16360*	0.06555	0.09672	-0.06502	1.00000					
수용	정보 학습	-0.06001	-0.11811	0.05193	0.15977*	-0.10151	1.00000				
	오락 흥분	-0.05473	-0.16135	-0.07680	0.14505*	-0.05513	0.19131**	1.00000			
	소일 습관	0.15713*	0.16526	0.10694	0.07359	0.05049	0.00887	-0.08287	0.21826**	1.00000	
현실감각	도피 친교	-0.00637	0.00594	0.13508*	0.02329	0.08196	0.02412	0.20335**	0.40500***	0.27804***	1.00000
	동일화	0.13880*	0.11064	0.10361	0.05080	0.10489	-0.02123	0.19311**	0.36543***	0.93419***	0.33811***
	요술 거울	-0.07200	-0.13278	0.02853	-0.07738	0.18264**	-0.06502	0.95265***	0.33397***	-0.06920	0.22495***
공격성	대인 공격	-0.06478	0.10362	0.06455	-0.12715	-0.01659	0.01984	0.14707*	0.22898***	0.17899**	0.29021***
	관계적 공격	0.16466*	0.22616***	0.20532**	0.12617	0.07358	0.05972	-0.02433	0.14890**	0.24545***	0.25685***
	잠재적 공격	0.13890*	0.07029	0.04139	-0.00183	0.07977	0.13463	0.02982	0.17870**	0.16828*	0.20667**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5〉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공격성			
		대인공격( $\beta$ )	대물공격( $\beta$ )	삼재적공격( $\beta$ )	전체공격성( $\beta$ )
FCO	개념지향	-0.01	0.09	0.10	0.04
	사회지향	0.01	0.06	0.15	0.06
CA	연설	0.10	0.26***	0.09	0.15**
	그룹토론	0.05	0.27***	0.19*	0.15**
	모임참석	-0.14	0.14	-0.01	-0.02
	대화	-0.13	0.13	0.09	-0.0001
영상매체 수용동기	정보·학습	0.18*	-0.03	0.03	0.08
	오락·흥분	0.22***	0.15*	0.19**	0.19***
	소일·습관	0.13*	0.20***	0.15***	0.16***
	도피·진료	0.22***	0.20***	0.17**	0.20***
폭력물의 현실감 지각	동일화	0.25***	0.10	0.29***	0.20***
	요술거울	0.36***	0.11	0.39***	0.28***
R <sup>2</sup>		0.39***	0.31***	0.33***	0.47***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에 영향을 주고 이를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 효과를 주는 변인이었으며, FCO는 영상매체 수용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를 매개로 공격성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이었다. 영상매체 수용동기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폭력물 수용시의 현실감 지각에 정적 영향을 주어 다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변인이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영상매체 수용동기, 폭력물 수용시 현실감 지각의 커뮤니케이션 상황들이 상호 어떤 유기적 관계에 있으면서 공격성을 유발시키는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공격성의 수준은 2.46으로, 고등학교 내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보고들(조선일보, 1995.11; 매일신문, 1995.11)을 고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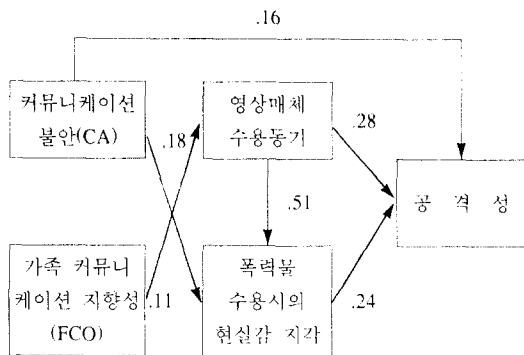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본 연구가 비행소년이 아닌 일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한편 잠재적 공격성이 3.62로 나타난 것은 상황이 주어지면 공격행동으로 분기 또는 점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각과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CA수준은 2.97로 중간점수에 가까웠으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줍음을 덜 탄다는 보고(Maziade, Boudreault, Thivierge, Caperaa, & Cote, 1979)와 관련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가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가 정보전달의 속도나 양의 발달은 가져왔으나 그 역기능적 반응으로 컴퓨터 등의 매체와의 접촉 빈도나 양에 비례해서 대인관계의 접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세대의 대인 기피증 내지는 CA를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CA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가족환경적 변인에서 양친이 모두 있는 집단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결혼가정의 자녀가 반사회적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내고(Baydar, 1988) 공격적

〈표 6〉 경로모형 검증을 위한 경로계수

변 인	경로 계수	t
1. 커뮤니케이션 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0.030 R <sup>2</sup> = 0.001      F = 0.163	-0.404 df = 1
2. 영상매체 수용동기 커뮤니케이션 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0.006 0.109 R <sup>2</sup> = 0.010      F = 2.949	0.095 1.877* df = 1
3. 폭력물 수용시의 현실감 지각 영상매체 수용동기 커뮤니케이션 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0.509 -0.182 0.046 R <sup>2</sup> = 0.213      F = 17.031*	6.579*** 2.53** 0.542 df = 1
4. 공격성 커뮤니케이션 불안(CA) 가족커뮤니케이션 지향성(FCO) 영상 매체 수용 동기 폭력물 수용시의 현실감 지각	0.158 0.056 0.278 0.236 R <sup>2</sup> = 0.179      F = 10.22***	2.159* 0.655 3.220*** 3.237*** df = 1

\* P < .05    \*\*\* P < .001



〈그림 2〉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경로 모형

이라는 결과들(김순애, 1987; 박원희, 1987)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폭력이라는 문제가 가족의 구조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과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며,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남기, 박정희,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94.3%가 양친이 있는 가정이고 단지 5.7%만이 결손가정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셋째, FCO와 CA의 관계에서 개념지향 가족은 CA의 하위영역 중 연설과 부정 상관에 있었고 사회지향 가족은 연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가족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면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포기 또는 양보하도록 조장되는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CA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환경자극이 아동의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보고(장영애, 1995)와 일치하며, 수줍음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이 되고(Broberg, Lamb, & Hwang, 1990) 인간발달에 있어서 초기환경이 중요하다는 결과(Bloom, 1974)와 관련해 볼 때 가족체계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초기환경으로서의 중요성을 지지해 준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가질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발달된다는 보고(Jones, 1972)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일 때보다 온정적일 때 아동이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가지도록 강화해 주고

(Paul, 1992) 초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청년후기의 유능감 및 지적 성취의 예측자라는 결과(Ferguson, 1987)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또 민주적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언어적인 의견 교환을 격려하며(Block, 1973), 이러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역량을 조장한다는 주장(Santrock, 1984)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CA는 공격성의 하위영역 중 대인공격보다는 대불공격과 잠재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이며 CA의 하위영역 중 연설은 폭력물 수용시의 동일화 현실감 지각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CA는 공격성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효과를 가지는 변인이기는 하나 소극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환경 변인으로서의 FCO는 공격성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 변인은 아니었고, 개념지향 가족이 영상매체 수용동기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간접적인 예측 변인이었다. 이는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유형의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적개심을 조장시킨다는 결과(Mussen et al., 1990)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상매체 수용동기는 공격성에 대해 직접 및 간접적 예측 변인이며, 동기가 의례적인 때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한편 의례적 동기는 폭력물 수용시 모방하려는 동일시 현실감과 상관이 있고 정보·학습(도구적)동기는 폭력물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요술거울 현실감과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공격성에 중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FCO가 자녀의 CA에 상관은 있으나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은 아니었고, CA는 대물 및 잠재적 공격성에 정적영향력을 가지므로 의견상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공격행동을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선행연구와 상반되게 자녀의 의사표현을 중시하는, 가족의 개념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규범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

족화와 더불어 오늘날 가족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녀 위주의 생활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해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목적 의식 없이 오락이나 습관적으로 폭력물을 보는 집단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폭력물의 내용을 모방해서 대응하기 쉬우며 이 경우를 비의도적이라 한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정보나 학습의 동기로 폭력물을 보는 경우 의도적인 폭력물의 현실감 지각행위로서 폭력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적 논거를 마련하므로써 미디어 폭력물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효과 생성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대구지역의 고등학교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자료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1) 권금주,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성 보충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2) 김 민,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3) 김순애, 결손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4) 박경규,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5) 박원희, 결손가정학생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6) 양유정,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폭력video 영화 접촉과 공격성간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7) 양집도,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 예측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8) 윤 건, 권금주,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 미치는 영향(1)-사회인지 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2), 1991.
- 9) 이강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TV의 사회적 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0) 이남기, 박정희,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 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265-278.
- 11) 장영애,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173-188.
- 12) 하종원, 텔레비전 드라마가 시청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문화계 발효과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13) Aronfeed, J. Conduct and Conscious, New York : Academic Press, 1968.
- 14)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977, 19-29.
- 15) Baydar, N. Effects of parental separation and reentry into union on the emotional well-being of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88, 967-981.
- 16) Berkowitz, L.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1984, 410-427.
- 17) Bemstein, B.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some Reference to Educability, in Gumperz J. & Hymes D.(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2.
- 18) Biblow, E. Imaginative play and the control of aggressive behavior, In J.L. Singer(Ed.), The child's world of make-believe, New York : Academic Prss, 1973.
- 19) Block, J.H. Conception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1973, 512-516.
- 20) Bloom, B. Preface in K. Marjoribanks (Ed.), Environments for Learning, Windsor, England : NFER Publishing, 1974.
- 21) Broberg, A., Lamb, M.E., and Hwang, P. Inhibition : It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sixteen-to forty-month-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990, 1153-1163.
- 22) Carveth, R. & Alexander, A. Soap Opera Viewing Motivations and the Cultivation Proces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29, 1985, 259-273.
- 23) Chaffee, S.H. Family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Iowa City, 1966.
- 24) Chaffee, S.H., McLeod, J.M., and Atkin, C.K.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4, 1971, 320-340.
- 25) Chaffee, S.H., McLeod, J.M., and Wackman, DB.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nnis J.(ed.),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John Wiley, f1973.
- 26) Chaffee, S.H., Mass Media Effect : New Research Perspectives, in Wilhoit, G. & Bock, H.(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1, 1980, 77-108.
- 27) Clevenger, Jr.T. A synthesis of experimental research in stage fright, Quarterly Journal of Speech, 4, 1959, 134-145.
- 28) Comstock, G.A. New emphases in research on the effects of television and film violence, in Palmer, E.L., & Dorr, A.(eds.), Children and the faces of television : Teacjong, violence, selling,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129-149.
- 29) Daly, J.A. & Friedrich, G.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ontributory Correlates, Communication Quarterly, 29, 1981.
- 30) Dodge, K.A.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 1980, 162-170.
- 31) Eysenck, H.J. & Nias, D.K.B. Sex, violence and the media, London : Maurice Temple Smith, 1978.
  - 32) Ferguson, L.R. Family interaction predictors of competence in late adolescence, EDRS 281 621, 1987.
  - 33) Feshbach, S. The stimulating versus cathartic effects of vicarious aggressive activ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1961, 381-385.
  - 34) Glaser, S.R. Oral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avoidance : The current status of treatment research, *Communication Education*, 30, 1981, 321-341.
  - 35) Halloran, J.D. Mass communication : Symptom or cause of violence? in Wilhoit, G.C. & H. de Bock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1, Beveri Hills, CA : Sage Publicatins, 1980, 432-449.
  - 36) Huesmann, L.R.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Pearl, D., Bouthilet, L., & Lazer, J.(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2 : Technical reviews, 126-137,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2.
  - 37) Huesmann, L.R., Lagerspetz, K., and Eron. L.D.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V Violence-Aggression Relation :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984.
  - 38) Huesmann, L.R.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4, 1988, 13-24.
  - 39) Jones, P.A. Home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verbal ability, *Child Development*, 32, 1972, 1081-1086.
  - 40) Kaplan, R.M., & Singer, R.D. Television violence and viewer aggression : A reexamination of the evidence, *Jounal of Social Issues*, 32(4), 1976, 35-70.
  - 41) Leyens, J.P. La valeur cathartique de l'aggression : Un mythe or une in connue? *L'Annee Psychologique*, 77, 1977, 525-550.
  - 42) Loeber, R.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982.
  - 43) Lull, J.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1980, 73.
  - 44) Maziade, M., Boudreault, M., Thivierge, J., Caperaa, P., and Cote, R. Infant temperament : SES and Gender Difference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n a Large Quebec Sample, *Merrill-Palmer Quarterly*, 5th ed., New York : Harper & Row, 1979.
  - 45) McCroskey, J.C. Measures of Communication-Bound Anxiety, *Speech Monographs*, 37, 1970.
  - 46) McCroskey, J.C. & Daly, J.A. Teacher's Expectations of the Communication Apprehensive Child in the Elementary Schoo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 1976.
  - 47) McCroskey, J.C. Oral communication apprehension : a summary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Hum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977, 78-95.
  - 48) ———, Oral communication apprehension : Reconceptualization and a new look at measurement. Paper presented at annual CSSA conference, Chicago, 1981.
  - 49) McCroskey, J.C. Booth-Butterfield, S., & Payne, S.K.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college student retention and success, *Communication Quarterly*, 37(2), 1989, 100-107.
  - 50) McLeod, J.M., Chaffee, S.H., and Wackman, D. B. *Family Communication : An Updated Report*,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Boulder, 1967.
  - 51)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C.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 : Harper & Row, 1990.



- 52) Paul, S.G.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2.
- 53) Phillips, G.M. Reticence : Pathology of the normal speaker. *Speech Monographs*, 35, 1968, 39-49.
- 54) Pilkonis, P.A.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 1977.
- 55) Plomin, R.A.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1974.
- 56) Potter, W.J. Examining Cultivation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18 1991, 77-102.
- 57) Santrock, J.W. *Adolescence : An Introduction*, Dubuque, IA : Wm.C. Brown Publishing, 1984.
- 58) Signorielli, N. & Morgan, M.(Eds.). *Cultivation Analysis*, Newbury Park, CA : Sage, 1990.
- 59) Scarr, S. Social introversion-extroversion as a heritable response, *Child Development*, 40 1969, 823-832.
- 60) Stowell, J. The effects of television viewing and family orientation on communication apprehen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1991.
- 61) Walberg, H.J., & Marjoribanks, K. Differential mental abilities and home environment : A canon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9, 1973, 363-368.
- 62) Wiegman, O. Behavior contag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75, In Van der voort, T. H.A. *Television Violence : A Child's Eye view*, N.Y. : Elsevier Science Pub., 1986.
- 63) Zilmann, D. Attribution and Misattribution of Excitatory Reactions, in Harvey, J. et al.(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2, 1978.
- 64) Zimbardo, P.G. *Shyness : What it is,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 Addison-Wesley, 1977.